濟州島硏究 제54집
2020. 8. pp.109~139.

제주 청년문화예술의 현황과 과제

정 민 경*·김 진 철**·남 영 희***·이 순 욱****

국문요약

오늘날 전국 지자체에서는 청년과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청년문화의 역할과 필요성에 이목이 집중된 데 비해 청년문화의 개념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명확히 하지 못한 채 담론의 폭이 확장되어 온 측면이 적지 않다. 제주에서도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청년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해 왔는데 사업과 더불어 연구를 지속적으로 병행한 점이 특별하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한 차례씩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는 각각 개별 목적을 지닌 연구였지만 이들 연구의 FGI 및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는 일은 지역 청년문화예술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세 편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결과, 제주 청년문화예술은 개성, 취향, 일상에 관심을 두고 있고 경제적 문제와 공간의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전을 위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적 만족감 추구와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의 기여로 관심의 폭이 확장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향후 청년문화예술의 과제로는 다양성의 가치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이어야 하며 지역사회 안에서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청년문화예술, 청년문화예술 지원 사업, 청년, 제주, 자아실현, 지역사회

* 주저자, 부산대학교 강사
** 공동저자,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 공동저자, 부산대학교 강사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교수

Ⅰ. 서 론

청년 세대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청년문화예술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문화예술은 경제 일반의 논리로 접근하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팬데믹으로 문화예술계 전반의 경제적 취약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사례를 감안하면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청년의 문제는 더욱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지역의 경우에는 또 다른 한 축의 논의가 부가된다. 수도권의 강력한 문화인프라와 그에 비해 빈약한 지역의 문화 환경 때문에 수많은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반 지역을 떠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지역에서는 청년문화예술인들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청년문화예술을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내걸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문화예술의 미래세대 육성이라는 측면과 동시에 지역 문화예술 융성과 진흥이 도시의 활력을 북돋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문화예술 육성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부분의 지원 근거는 각 시·도 또는 구·군 단위의 청년 기본 조례에 두고 있다.[1] 청년 기본 조례는 일자리, 거주, 복지 등 청년의 일상과 밀접한 사항들을 두루 내포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도 그중 일부를 차지한다. 그런데 청년 기본 조례 상의 문화예술은 창작과 향유 영역을 동시에 함께 다루고 있어 범주가 매우 넓고 추구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수요에 비해 부족한 재원과 경력 제한 등 젊은 문화예술인들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제주지역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지역에서는 정책 마련과 사업 시행에 그치지 않고 이와 관련한 일련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지금껏 제주에서는 청년문화예술과 관련한 연구를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제주 청년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김진철 · 조서현 · 이형문 · 이재형 · 양지혜, 2017, 이하 「기초 연구」), 「제주 청년문화예술 지원 사업 고도화를 위한 연구」(김진철 · 조서현 · 이형문 · 이재형 · 정슬기 · 박기현 · 박지연, 2018, 이하 「고도화 연구」), 「제주 청년문화예술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순욱 · 김진철 · 남영희 · 정민경 · 조서현 · 박경호, 2019, 이하 「중장기계획 연구」)이 그것이다.

---

1)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에 더하여 청년문화 관련 조례를 따로 두고 있기도 하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문화활성화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이 그것이다. 부산의 경우 2013년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었으나 2017년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앞의 조례 내용을 편입하였다.

「기초 연구」와 「고도화 연구」는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2017년과 2018년 청년문화예술 네트워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한 청년예술 정책연구 모임 '아트랩(Art-LAB)'을 통해 도출되었다. 이 연구 모임에는 청년문화예술인과 전문연구원, 제주문화예술재단 관계자가 참여하여 청년문화예술인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였다. 「중장기계획 연구」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틀을 설정하기 위해 2019년에 실시한 연구다. 세 연구는 각 목적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2017~2019 연구별 설문조사 개요

구 분	2017	2018	2019
연구명	제주 청년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제주 청년문화예술 지원 사업 고도화를 위한 연구	제주 청년문화예술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목 적	청년문화예술인의 종합적인 상황 파악	청년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평가 및 보완 사항 파악	제주 청년문화예술의 현실과 요구 조사
대 상	청년문화예술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가자를 비롯한 청년문화예술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청년문화예술 지원 사업 선정자	청년문화예술 활동가
내 용	◦ 청년문화예술 환경에 대한 인식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	◦ 청년문화예술 지원 사업 신청 및 운영의 애로사항 ◦ 사업 만족도 및 개선과 관련된 사항 등	◦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 양상 ◦ 실제 활동상의 어려운 점과 문제점 ◦ 영역별 개선 및 요청 사항 등
일시	2017년 11월-12월	2018년 12월 17일(월)-19일(수)	2019년 7월 17일(수)-31일(수)
방식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	온라인 · 오프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77명	33명	201명

「기초 연구」는 청년문화예술인의 전반적인 상황 파악, 「고도화 연구」는 지원 사업의 평가와 보완점 파악, 「중장기계획 연구」는 청년문화예술의 현실 파악 및 실질적인 요구 도출을 목표로 하였다. 각 연구의 목적에 맞게 청년문화예술 현장의 실질적 요구와 지형도를 그릴 수 있었으며 청년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향을 내실 있게 설정하는 기초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각 연구가 개별 과제로 추진되어 유기적 관련이 적고,[2] 제한된 연구 규모 때문에 설문 대상자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청년문화예술과 관련한 연구가 연속적으로 추진된 지역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

2) 「중장기계획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우며 각 연구마다 제주지역의 청년문화예술 현실과 요구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청년문화예술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청년문화예술은 두 가지 점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청년문화예술의 개념은 무엇인지 추적해야 한다. 청년문화예술은 새로운 개념일 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대단히 넓고 복잡한 층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적 생산성 측면에서 문화예술이 가지는 특수성, 오늘날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불안정한 사회적 환경, 청년세대 특유의 역동성 등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문화예술을 고정적이거나 머물러 있는 개념으로 간주해서는 곤란하며 언제나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역동성에 주목하며 그 개념을 갈무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문화예술의 지원 방향을 설정할 때 현장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 청년문화예술의 개념 자체가 정립되지 못하고 역동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현장의 움직임과 요구를 면밀히 파악할 때 실질적이고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를 통해 실증적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청년문화예술과 관련한 제주지역 일련의 연구는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문화예술과 관련한 연구가 연속적으로 추진된 지역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거니와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청년문화예술의 현실과 요구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지역 청년문화예술의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발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제주 청년문화예술과 관련된 세 차례 연구를 토대로 제주 청년문화예술 정책과 사업의 성과와 한계, 청년문화예술 활동의 경향과 요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청년문화예술이 지향해 나가야 할 가치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제주 청년활동의 기반과 지원 사업

1. 청년 관련 정책과 기반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 기본 조례」),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농업인 육성 조례」를 제정·운영함으로써 청년 관련 정책과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그 중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3]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청년문화예술의 개념 중 문화예술의 정의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므로 문학, 미술[4],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포함한 영역을 의미한다. 청년의 정의는 연령 기준으로 제시되는데,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에서는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두고 있다. 청년 관련 제도 중 '청년'의 연령은 각 법률 또는 조례의 용도, 해당 영역의 특징, 각 도시의 인구 특성 등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되고 있으며, 사회적 요청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 재설정되기도 한다. <표 2>는 청년과 관련한 국가 법령과 타 지자체의 조례·규칙의 연령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5]

<표 2> 법령과 각 시도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의 연령

구 분	15	16	17	18	19	—	29	30	34	35	39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	■	■	■	■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	■	■	■	■	■	■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	■	■	■	■	■	▨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	■	■	■	■	■	■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	■	■	■	■	■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	■	■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포함

제주의 청년 관련 다른 조례 역시 연령 기준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가령 2012년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15세-29세 이하, 2016년 제정한 「청년 기본 조례」는 만 19세-34세 이하, 2018년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조례」는 19세-45세다. 이들 조례가 각기 다른 연령 기준을 제시하는 까닭은 정책 대상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즉 각 조례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정책 대상을 달리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청년 연령 범위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다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다만 제주의 경우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의 청

3)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
4)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5) 적시된 숫자가 아니라 해당 법령 및 조례에 적용 가능한 연령을 표시하였다.

년 연령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나 실제 지원 사업에 신청 가능한 연령은 만 19세 이상으로 그 기준이 상이하다. 조례가 규정하는 정책 대상의 연령과 실제 사업에서 적용되는 연령에 차이가 있을 경우 혼란을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로는 청년정책심의위원회(「청년 기본 조례」 제10조), 제주청년원탁회의(「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제2항), 청년문화예술기획단(「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제10항)들이 제도화되어 있다. 청년정책심의위원회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제주청년원탁회의는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년들의 자율적인 활동과 참여를 지원, 독려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50명 내외의 청년위원을 위촉하여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청년문제 발굴·조사·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며, 전체회의체 아래 교육, 관광, 농업, 문화·예술, 일자리, 주거, 환경 분과가 나뉘어져 있다. 청년원탁회의에서 문화·예술 분과가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향유자의 영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마저도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청년문화예술기획단은 제도상으로는 설치 가능한 기구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공간의 경우,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에 근거하여 오프라인 거점공간인 제주청년센터가 2017년 개소하였다. 그리고 제주시 소재의 청년다락 1호점, 서귀포시 소재의 청년다락 2호점이 운영되고 있다. 청년문화예술 관련 공간으로 공공영역에서 특정된 공간은 아직 없다. 문화예술은 연습과 창작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전시, 공연, 발표를 위한 공연이 모두 필요한 분야이므로 공간은 무엇보다 필수적인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제도와 정책은 이러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 민간영역에서는 공공영역과 마찬가지로 청년문화예술 공간으로 특정된 곳은 없지만 청년예술인이 운영하는 갤러리, 극장, 하우스 콘서트 공연장, 네트워크 활동 공간, 청년예술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소규모 공연장, 업싸이클링 공방 및 전시장, 밴드 공연장, 청년예술인을 지원하는 갤러리 등이 있으며 나름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 청년문화예술 지원 사업과 현장의 요구

제주 청년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시작은 2013년 시범적으로 실시된 우수 신진예술가육성지원 사업이다. 이듬해인 2014년 제주 신진예술가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

며 2016년까지 이 사업과 더불어 멘토링과 같은 비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청년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전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때는 2017년부터다. 그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제주특별자치도, 2017)이다.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2017년 실시한 제주 청년 종합실태 조사가 그 모태이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세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이 되었다. 5년간 3,229억원 규모의 사업비에 소득・자립・참여 및 활동・문화/여가 4개 영역 46개 과제를 설정하였다. 그중 문화/여가 영역의 총 예산은 67억원으로, 청년예술인 지원, 청년문화 박람회, 청년 제주 문화체험 등 3개의 세부 과제를 설정하였다. 이는 2019년 계획수립 단계에서 '청년 예술인 지원'과 '청년문화 향유' 2개 항목 6개 세부 과제로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6)]

청년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전담팀이 꾸려진 때도 2017년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진흥팀의 소관 업무로 추진되다가 생활문화・청년예술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2019년 2월부터는 생활·청년문화팀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0년에는 예술창작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은 2017-2019년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한 청년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명칭과 예산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이순욱 외, 2019: 93).

<표 3> 제주문화예술재단 청년문화예술 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2017~2019년)

단위: 천 원

재원	사 업 명	연도별 지원 예산 현황			계	사업진행상황 (2019년 기준)
		2017	2018	2019		
지방비	신진예술가 활동지원 사업	100,000	-	-	100,000	종료
	청년예술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6,000	15,000	30,000	51,000	유지
	청년예술 창작공간 이층 지원	20,000	공간 지원	-	20,000	종료
	청년유망예술가 육성 지원	100,000	150,000	50,000	300,000	유지
	청년문화예술 네트워킹 프로그램	70,000	70,000	-	140,000	통합
	청년문화예술 오픈존 사업	-	30,000	-	30,000	통합
	청년문화예술 사업공모전	-	30,000	-	30,000	통합
	청년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	30,000	-	30,000	통합
	청년문화예술포털서비스(아트노크)	-	70,000	52,000	122,000	유지
	청년문화예술 콘텐츠 펀딩	-	40,000	30,000	70,000	유지
	청년예술 처음발표 지원	-	-	15,000	15,000	신설
	청년문화기획 프로젝트 지원	-	-	100,000	100,000	통합
	청년문화 아지트 프로그램	-	-	40,000	40,000	통합

6) 청년문화 매개 특성화 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지원 사업, 청년문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UCLG 글로벌 청년문화 포럼, 제주 대표 청년문화사절단 지원, 제주 청년박람회, 제주 청년 도일주 문화체험 등이 그것이다.

	제주대표 청년문화사절단 지원	–	–	100,000	100,000	신설
소 계		296,000	435,000	417,000	1,148,000	
국비	청춘마이크	120,000	150,000	–	270,000	이관
합 계		416,000	585,000	417,000	1,418,000	

사업예산의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지만 제주 청년문화예술 관련 사업은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추진되어왔다는 사실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아카이빙과 네트워킹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청년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 '아트노크(Art Knock)'[7]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청년문화예술 활동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제주 청년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을 폭넓게 불러일으켰으며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2017-2019년까지 청년문화예술 지원 사업 추진 성과는 <표 4>와 같다(이순욱 외, 2019: 95).

<표 4> 제주문화예술재단 청년문화예술 사업 추진 성과(2017~2019년)

최종 참여자(팀) 수 / 신청자 수

사 업 명	연도별 사업 성과			계
	2017	2018	2019	
신진예술가 활동지원	11명 / 32명	–	–	11명 / 32명
청년예술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2명 / 3명	4명 / 5명	7명 / 10명	13명 / 18명
청년예술창작공간 이층 지원	6명 / 7명	7명 / 10명	–	13명 / 17명
청년유망예술가육성 지원	14명 / 18명	15명 / 20명	5명 / 32명	34명 / 70명
청년문화예술 네트워킹 프로그램	223명	323명	–	546명
청년문화예술 오픈존 사업	–	6명 / 6명	–	6명 / 6명
청년문화예술 사업공모전	–	2명 / 12명	–	2명 / 12명
청년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	310명	–	310명
청년문화 포털서비스(아트노크)	–	57명	19명	76명
청년문화예술 콘텐츠 펀딩	–	21건 / 21건	20건 / 20건	41건 / 41명
청년예술 처음발표 지원	–	–	3명 / 4명	3명 / 4명
청년문화기획 프로젝트 지원	–	–	5명 / 30명	5명 / 30명
청년문화 아지트 프로그램	–	–	7명 / 9명	7명 / 9명
제주대표 청년문화사절단 지원	–	–	2팀 / 13팀	2팀 / 13팀
청춘마이크	8팀 / 30팀	9팀 / 60팀	–	17팀 / 90팀

이와 같은 사업 성과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한편 청년문화예술 활동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주에서는 청년문화예술 사업의 시행과 동시에 연구와 고찰을 실시하였다. 2017년 「기초 연구」는 표적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통해 현장의 생생하고 다

7) https://artknock.net

양한 목소리를 담아냈다.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각자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단계별, 시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문화예술인 간 소규모 모임 형태의 프로그램 필요 → 동료나 선배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과정을 보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
- 개인이 구하기 어려운 자료가 구비된 학습 공간 필요
- 청년예술인의 활동을 열람할 수 있는 아카이빙 공간 필요
- 제주문화예술지원 사업신청을 위한 사업 매뉴얼 제공 필요
- 제주문화예술지원 사업 홍보 강화 필요 →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 활용
- 청년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비영리 매니지먼트 운영 필요

2018년 「고도화 연구」와 2019년 「중장기계획 연구」에서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지원사업에 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 5가지 이슈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지원 사업 정보 획득 및 신청과정에 관한 이슈가 있다. 다음은 「고도화 연구」 결과에 나타난 관련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 청년예술인들은 주로 지인들의 추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 주변 예술인들과 교류가 활발한 경우 정보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음
- 청년문화예술 관련 지원 사업 홍보방법 다각화 필요 → 청년들이 선호하는 매체 활용
- 지원 신청서 작성 교육 필요
- 지원 조건, 평가와 선정 관련 정보 제공 필요

「중장기계획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청년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에 지원한 적 없다는 응답이 58.7%, 있다가 41.3%로 나타났는데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보를 몰라서가 51.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지원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가 16.9%, 자체 활동과 병행하기 어려워서가 14.4%로 뒤를 이었다(이순욱 외, 2019: 179). 연령대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다. 특히 19-24세 연령대에서는 84.8%가 지원한 적 없다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은 층의 지원신청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원한 적 있다는 응답에서 다원예술분야의 비중은 81.8%로 매우 높게 나타나 청년문화예술 분야의 영역이 크게 확산되고 융·복합을 다각도로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청년문화예술의 영역을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으로 제한하지 말고 보다 폭넓게 사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창작공간지원 사업에 관한 이슈다. 창작공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사업의 지원 조건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즉 임대료 지원 사업의 경우 청년

예술인 명의로 공간 소유주와 계약이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다. 청년예술인들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님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대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인이 빌린 작업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들은 사업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한정적이었다. 또한 사업에 선정되었을 경우 영리목적의 활동이 금지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2층에 마련되었던 레지던시 공간은 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레지던시에 참여하는 작가들 간의 교류가 부족해 아쉬웠다는 의견과 더불어 정기적인 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셋째, 역량강화와 네트워킹 관련 이슈다. 「고도화 연구」 FGI에서는 멘토링 사업이 자신의 예술활동에 대한 평가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들이 다수 있었다.

-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멘토링 시스템 필요
- 단발적 강연 형식의 아카데미보다 장기적 교육방식으로 전환 필요
- 창업, 세무, 기술, 교육 등의 아카데미 프로그램 필요
- 네트워킹 수요 조사 필요 →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 시 네트워킹 활동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함
- 대규모 네트워킹 대회보다는 소규모 네트워킹 활동 선호
- 단순한 만남의 기회 지양, 예술활동을 통한 만남이 되어야 함

「중장기계획 연구」 설문조사 결과도 유사하다. 청년문화예술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발표 기회가 28.4%, 전문교육 프로그램 심화·확충이 22.4%, 창작활동 컨설팅 제도 도입이 19.4%, 동료평가, 평론, 콘테스트 등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이 14.4%, 아카이브 구축이 12.4%로 나타났다. 한편 「기초연구」 FGI에서는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제시되었다.

- 제주에서는 원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찾기가 쉽지 않음 → 제주도 외 지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할 때 항공료, 체류비 등 비용과 소요시간이 상당함
- 창작, 기획 관련 프로그램에 더하여 마케팅, 글로벌 진출, 행정 등 비예술 분야 프로그램도 필요함 → 예술가 자신이 스스로 기획하고 마케팅해야 하기 때문

네트워킹과 관련해서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계획 연구」에서 도내 청년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기획가-예술인-공간 연계 지원이 32.3%,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28.9%, 협업(공동작업) 지원 확대가

20.9%, 정기적인 국내외 문화예술인 교류의 장 마련이 14.9%로 나타났다.

넷째, 청년문화예술 향유기반 조성에 관한 이슈다. 「중장기계획 연구」 설문조사 결과, 작품의 상설 전시장 및 대회 마련이 24.9%로 가장 높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활성화가 24.4%, 세대, 다문화,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사회 현안과 연계된 활동 지원이 20.4%, 축제 등 관광산업과 연계한 정기적 행사가 14.9%, 잡지, 소식지, 웹진 등 전문매체 발간이 11.9%로 나타났다. 청년문화예술 향유기반은 지역사회로부터 구축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 현안 및 지역의 특징인 관광산업과 연계된 활동의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청년문화예술이 지역에 기여하고 지역은 청년문화예술의 향유기반이 되는 윈윈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다섯째, 종합지원시스템에 관한 이슈다. 지원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이 25.4%,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문화예술인 참여 확대가 20.9%, 지원분야 다각화가 19.4%, 지원 사업의 적극적 홍보가 17.4%, 지역사회 및 지역 문화예술기관과의 협력 강화가 11.4%로 나타났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어느 한 분야에 국한한 노력이 아니라 다각도의 노력이 꾸준히 견지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청년문화예술 육성·지원을 전담하는 종합지원시스템에 관한 요구가 가장 절실하게 나타나며, 다른 요구 역시 전담기구와 종합지원시스템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될 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사업홍보와 행정 지원 분야의 어려움 문제가 거론되었다.

- 혼자 활동하는 청년예술인의 경우 홍보 자료 제작 방법, 실제 홍보방법이 서투름
  →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와 협업 시스템 필요
- 예술인 사이나 끼리의 홍보가 아니라 향유자 중심의 홍보가 필요
- 개인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 박람회 등 행사 제안
- 기획, 작업, 홍보, 정산 등을 혼자 처리하기 힘듦 → 예술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매니지먼트의 지원 시스템 필요

그 밖에 기타 의견으로 아트공방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아트공방은 예술활동에 필요한 도구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개인이 구비하기 어려운 도구나 자신에게 필요 없는 도구들을 공유할 수 있고 예술활동의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교환할 수 있다. 메이커 스페이스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최근 제주에 개인 공방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공방에서 운영하는 원데이클래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아트공방의 운영을 통해 교육에 대한 수요와 네트워킹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세 차례에 걸친 FGI와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현장의 요구사항은 예술가 성장

단계 및 시기별 지원, 네트워킹과 교류 활성화, 공간과 장비 지원, 행정 지원, 사업홍보 활성화, 사업 지원 시스템 마련, 역량강화 프로그램 활성화, 향유기반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Ⅲ. 제주 청년문화예술 활동 현황과 가치 인식

1. 청년문화예술 활동 현황

지금껏 추진된 세 차례의 연구는 모두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으며 제한된 연구 규모 때문에 인터뷰나 설문 대상자 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제주 청년문화예술 활동가와 단체의 활동 현황 실태를 파악한 연구는 없었다는 뜻이다. 때문에 그 실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다만 몇 가지 자료를 통해 경향을 파악해 볼 수는 있다. 우선『2018 제주문예연감』에 따르면, 제주 지역 문화예술단체는 건축 3개, 다원 및 일반 29개, 무용 27개, 문학 47개, 미술 58개, 사진 40개, 서예 37개, 연극 19개, 연예 1개, 영화 4개, 음악 130개, 전통예술 44개, 종합 3개가 활동하고 있다(제주문화예술재단, 2018: 114-130). 그러나 청년문화예술은 연령이나 활동 영역의 경계가 유연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어느 정도를 청년문화예술 단체라 할 수 있을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주 문화예술 단체의 전반적인 규모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다음으로 그간 제주 청년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신청한 사업을 기준으로 청년문화예술 활동가와 단체의 활동 현황의 경향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사업 선정 여부를 떠나 신청 단체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역동성과 다양성, 참신성, 우수성을 두루 엿볼 수 있다. 또한 신청 단체의 구성과 활동에도 우수한 역량과 높은 의지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인디밴드 등 대중음악, 클래식 음악, 연극 장르 단체의 경우 활동이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거나,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 활동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사례나 음반 발매 활동도 적지 않다. 개인 자격의 청년 문화예술인이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고 난 후 역량을 키워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장르는 기초예술부터 대중음악, 거리예술까지 다양하며, 영상 미디어 기술과의 접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콘텐츠는 제주 지역의 전통문화 원형을 발굴하고 재현하려 하는 시도와 휴양지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선행연구 결과 중 제주 청년문화예술 활동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사항을 종합해 볼 수 있다.

「중장기계획 연구」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20-30대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다. 68.7%

가 제주시 동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학교 이상 고학력 비중이 76.2%로 높은 편이다. 출신 전공은 인문 45.3%, 예술계열이 40.3%이며, 68.2%가 활동분야의 본인의 전공이 일치한다고 답했다. 57.2%가 비전업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답한 것은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한 고용구조와 경제수익창출구조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주 담당 역할에서는 창작·실연 분야가 49.8%로 가장 높다. 뒤이어 제작·기획 분야가 28.4%로 나타났으며 전자의 전업 비율이 높은 편이다. 문화기획 장르를 비롯하여 제작과 기획 분야는 시대의 흐름과 청년문화예술 육성·지원 정책에 따라 보다 새롭게 약진하고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5년 이상이 43.3%로 높은 편이며, 3-5년이 15.9%, 3년 미만 40.8%로 나타났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표 5>, <표 6>, <표 7>과 같다(이순욱 외, 2019: 124, 127, 128).

<표 5>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응답자 수 (명)	비율 (%)
전 체		201명	100.0%
연령	만 19세 이상 ~ 24세 이하	33	16.4
	만 25세 이상 ~ 29세 이하	51	25.4
	만 30세 이상 ~ 34세 이하	57	28.4
	만 35세 이상 ~ 39세 이하	60	29.9
현재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138	68.7
	제주시: 읍·면지역(옛북제주군)	25	12.4
	서귀포시: 동지역	16	8.0
	서귀포시:읍·면지역 (옛남제주군)	16	8.0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	6	3.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	6.0
	대학 재학	32	15.9
	대학 졸업	93	46.3
	대학원 재학 이상	60	29.9
	기타	4	2.0
전공계열	인문계열	91	45.3
	이공계열(농업, 상업, 공업 등)	27	13.4
	예술계열	81	40.3
	기타	2	1.0
활동분야와 전공일치 여부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다	64	31.8
	대체로 일치한다	137	68.2
전업활동	전업활동이다	86	42.8
	비전업활동이다	115	57.2

<표 6> 주 담당 역할

구 분	응답자 수 (명)	비율 (%)
교육·연구·비평	22	10.9
기술지원스태프	5	2.5
예술경영 및 행정	17	8.5
제작·기획	57	28.4
창작·실연	100	49.8
전 체	201	100.0

<표 7> 제주 청년문화예술인 활동 기간

구 분	응답자 수 (명)	비율 (%)
6개월 미만	36	17.9
6개월~1년 미만	18	9.0
1년 이상~3년 미만	28	13.9
3년 이상~5년 미만	32	15.9
5년 이상~10년 미만	35	17.4
10년 이상	52	25.9
전 체	201	100.0

<표 8>은 청년문화예술인들의 현재 주 활동지역과 희망 활동지역을 나타낸 것이다(이순욱 외, 2019: 132). 응답자들의 주 활동지는 제주시 동지역 46.3%, 전국 21.9%로 나타났다. 주 활동지가 이처럼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점은 타 지역과 다른 제주만의

특징이다. 제주의 특수한 인구 분포 상황과 지리적 환경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지역사회와의 스킨십 부족과 지역사회 참여 활동 부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향후 희망하는 활동지로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과 제주도 전역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았고 제주시 동지역도 16.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체로 보다 광범위한 지역 단위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추세를 보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도외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경향도 보인다.

<표 8> 현재 주 활동 지역과 향후 활동 희망 지역

구 분	현재 주 활동지역		향후 활동 희망 지역	
	응답자 수 (명)	비율 (%)	응답자 수 (명)	비율 (%)
제주시: 동지역	93	46.3	33	16.4
제주시: 읍·면지역(옛 북제주군)	16	8.0	7	3.5
서귀포시: 동지역	5	2.5	5	2.5
서귀포시: 읍·면지역(옛 남제주군)	2	1.0	4	2.0
제주도전역	36	17.9	38	18.9
전국(제주도포함)	44	21.9	106	52.7
기 타	5	2.5	8	4.0
전 체	201	100.0	201	100

<표 9>는 활동 분야를 나타낸 것이다(이순욱 외, 2019: 125). 제시된 14개 분야 중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응답이 27.9%로 가장 높았다. <표 10>에서 '2018 전국 예술인 실태조사'와 '2018년 부산 청년문화 연구' 결과를 비교해보았을 때도 미술 장르의 강세는 두드러진다(이순욱 외, 2019: 126). 그 다음으로는 음악이 16.9%로 양악, 국악, 대중음악을 포함하는 비율이다. 전국 예술인 실태조사와 부산 연구 결과에서는 음악이 가장 돋보이는 분야로 나타난 것과 비교된다. 문화기획은 15.9%로 뒤를 이었다.

<표 9> 제주 청년문화예술인 주 활동 분야

구 분	응답자 수 (명)	비율 (%)
미술 (동양화, 서양화, 디자인 등)	56	27.9
문화기획 (지역공동체, 공연·전시, 여행, 행사, 교육, 네트워크 형성)	32	15.9
대중음악, 실용음악	20	10
영화, 애니메이션	16	8
문학	15	7.5

서양음악(클래식, 오페라)	13	6.5
다원예술(퓨전, 융·복합)	11	5.5
연극, 뮤지컬, 마임	10	5
영상(방송, 유튜브 제작 포함)	8	4
기 타	8	4
사 진	6	3
무용, 발레, 실용댄스	3	1.5
만화, 웹툰	2	1
국악(정악, 민속악)	1	0.5
전 체	201	100*

* 소수 둘째 자리 반올림

<표 10> 지역별 청년문화예술인 주 활동 분야 비율 비교 – 전국, 부산, 제주

(단위: %)

구 분		2018 전국 예술인실태조사 (30대 이하)		2018 부산 청년문화예술인 현황조사(N=230)		2019 제주 청년문화예술인 실태조사(N=201)	
문 학	문학	4.0	2.0	2.2	2.2	8.5	7.5
	만화		2.0		–		1.0
미 술	미술	12.9	11.7	7.4	7.4	27.9	27.9
	공예		1.2		–		
음 악	음악(서양)	42.8	9.3	29.6	29.6	16.9	6.5
	국악		5.3				0.5
	대중음악		28.2				10.0
영상영화	영화	14.2	7.8	10.4	8.7	14.9	8.0
	영상**		5.5		–		4.0
	사진		0.9		1.7		3.0
연 극	연극, 뮤지컬, 마임	16.7	16.7	13.0	13.0	5.0	5.0
무 용	무용, 발레, 실용댄스	6.9	6.9	3.5	3.5	1.5	1.5
문화기획	문화기획	–	–	25.2	22.6	15.9	15.9
	문화공간 및 시설운영	–	–		2.6		
다원예술	퓨전, 융복합	–	–	5.2	5.2	5.5	5.5
기 타		2.4	2.4	3.5	3.5	4.0	4.0
전 체		100		100		100	

* 비교를 위해 분야를 조정함

**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방송연예' 로 분류

주 담당 역할의 현황 중 제작·기획 분야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사실은 눈여겨 볼 만하다. 과거에는 문화예술 활동에서 창작·실연이 중심이며 제작·기획은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방식과 형태의 창작과 실연의 답

습만으로는 향유자들의 폭넓은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 도시재생, 공동체 회복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기 때문에 기획과 제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제작·기획의 영역은 전통적인 형태의 공연·전시 기획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사업,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문화예술 장르 간의 융합, 나아가 일상생활의 영역까지 두루 포섭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제작·기획 분야의 역할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활동상의 어려움에 관한 의견을 살폈다. 공간 확보에 대한 어려움은 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기초 연구」 FGI 결과, 청년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공간 인프라 부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간을 창작과 연습이 이루어지는 작업 공간과 공연, 전시 등이 이루어지는 발표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작업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개인 작업 공간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개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큰 이유로 보인다. 공간과 관련한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자신의 창작 또는 기획행위를 할 수 있으면서 향유자들과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 획일화된 공간보다는 각 장르에 적합한 공간이 필요함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좋음
- 대규모 시설보다는 소규모 시설이 많이 있으면 좋겠음
- 저렴하면서 시설이 좋은 공간은 모든 문화예술인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청년문화예술인들이 기회를 잡기 어려움
-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음
- 공공기관의 공간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간을 연계하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음

「중장기계획 연구」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습, 창작에 필요한 작업 공간과 관련하여 개인 공간이 66.7%, 소속단체(회사, 학교 등)가 보유한 공간이 18.9%로 나타나 개인 작업 공간에 필요성과 공간 마련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간은 6.0%에 불과하여 공공기관과 협력한 공간 연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시·공연에 필요한 발표공간은 이용공간이 없다는 응답이 32.3%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공공기관 운영 공간은 24.9%, 민간 기관 운영 공간이 14.4%로 나타나 민간 갤러리, 카페 등이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발표 공간은 문화예술 향유 공간의 기능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다양한 공간을 발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표 11>, <표

12>와 같다(이순욱 외, 2019: 140, 143).

<표 11> 제주 청년문화예술인의 주 작업 공간

구 분	응답자 수 (명)	비율 (%)
개인 공간	134	66.7
소속단체 (회사, 학교 등) 공간	38	18.9
공공기관 운영 공간	12	6.0
민간기관(사설) 운영 공간	17	8.5
전 체	201	100

<표 12> 주로 이용하는 발표 공간

구 분	응답자 수 (명)	비율 (%)
이용하는 공간 없다	65	32.3
개인(집, 작업실 등) 공간	29	14.4
소속단체 (회사, 학교 등) 공간	16	8.0
공공기관 운영 공간	50	24.9
민간기관(사설) 운영 공간	29	14.4
기타(온라인, 거리 등)	12	6.0
전 체	201	100.0

<표 13>은 응답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간을 나타낸 것이다. 가장 필요한 공간은 작업 공간이며 다음으로 정보취득과 네트워킹을 위한 공간을 꼽았다(이순욱 외, 2019: 146). 청년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는 창작 활동 못지않게 정보, 교류, 네트워킹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표 13> 문화예술 활동에 가장 필요한 공간

구 분	응답자 수 (명)	비율 (%)
작업 공간	95	47.3
발표 공간	34	16.9
정보취득, 교류 등 네트워킹 공간	57	28.4
기타(불필요 포함)	15	7.5
전 체	201	100.0

청년문화예술인들은 선배세대나 동년배 또는 타 지역 예술인들과의 교류를 갈망하기도 했다. 「기초연구」와 「고도화 연구」의 관련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자신의 예술활동에 대한 조언이 필요함 → 전문예술인과 청년예술인 사이에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면 좋겠음
- 체계적인 멘토링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음
- 단순한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각자 능력에 따라 협업 기회가 생기면 좋겠음
-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 예술인들 간 상호교류가 있으면 좋겠음

- 평가가 좋은 청년예술가에게 타 지역 예술가와의 교류 기회가 있으면 좋겠음
- 연속성 있는 활동을 위해 레지던시, 아트페어, 전시회 등과 연결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음

청년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를 비롯하여 공간 이용시간 확대, 공연 이용의 편의성 등 자유롭고 편리한 공간 이용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았다. 또한 민원 발생 우려나 사전 허가 등의 제약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야외 거리나 특화지구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이순욱 외, 2019: 207).

청년문화예술 활동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현상으로 문화예술계 전반의 경제적 취약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생각하면 지역 청년문화예술 활동이 처해있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 「중장기계획 연구」에서는 월평균 소득과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소득비율을 설문조사 하였다. 제주 청년문화예술인의 평균 월 소득은 164.8만원으로 여기에는 문화예술 활동 외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용돈, 기타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1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얻고 있다는 응답도 31.8%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 중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비율이 50% 이하라는 답변은 77.1%에 달하며, 심지어 문화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38.8%였다. 월 평균 소득금액이 낮다는 사실도 문제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청년 문화예술활동의 경제적 취약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4>, <표 15>와 같다(이순욱 외, 2019: 136, 137).

<표 14> 월 평균 소득(2018년 기준)

구 분	응답자 수 (명)	비율(%)
50만 원 미만	28	13.9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36	17.9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30	14.9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43	21.4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	37	18.4
2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8	4.0
300만원 이상	19	9.5
전 체	201	100.0

<표 15> 전체 소득 중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한 소득 비율

구 분		응답자 수 (명)	비율(%)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한 소득 비율	10% 이하	112	55.7
	10~30% 이하	29	14.4
	30~50% 이하	14	7.0
	50~70% 이하	6	3.0
	70~90% 이하	12	6.0
	90% 초과	28	13.9
전 체		201	100.0

「기초 연구」 FGI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청년예술인들은 예술 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경제적 여건을 꼽았다. 이 부분은 비단 청년예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자리, 일거리가 자신의 경력에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자리나 일거리는 한정적임
- 예술활동에 필요한 비용, 생계 유지 비용을 벌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분야에서 일을 해야 함 → 예술활동에 전념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 악순환이 거듭됨
-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도 경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 지원 사업의 지원금은 기획비, 인건비 등을 집행할 수 없어 생활비는 별도로 벌어야 함 → 예술활동 과정을 지원해 주면 좋겠음,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음

「고도화 연구」 FGI에서는 예술활동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피력하기도 했다. 가령 '청년유망예술가 육성지원 사업'은 매달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여 만족도가 높았다. 매달 주어지는 고정적인 수입은 기본적으로 창작활동을 위한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예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 높은 활동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계획 연구」에서는 청년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지원 사항을 조사하였다. 청년문화예술인 경제적 기반강화, 청년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재능있는 문화예술인 발굴 및 전문성 강화,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 도내외 문화예술인 교류 네트워킹 활성화, 청년문화예술 관련 전담 기관 설립 등 6개 지표가 제시되었으며 그중 경제적 기반 강화에 대한 요청이 29.9%로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 해법으로 재료비, 훈련비, 거주비 등 직·간접적 창작 지원 확대, 일자리 확충, 시장 활성화, 창업 및 펀딩 기회 확대, 작업공간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

면 <표 16>, <표 17>과 같다(이순욱 외, 2019: 165, 173).

<표 16> 청년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지원

구 분	응답자 수 (명)	비율(%)
청년문화예술인 경제적 기반강화	60	29.9
청년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시설, 공간, 기자재 등)	53	26.4
재능 있는 문화예술인 발굴 및 전문성 강화	47	23.4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반 조성	18	9.0
도내외 문화예술인 교류 네트워킹 활성화	16	8.0
청년문화예술 관련 전담지원기관 설립	7	3.5
전 체	201	100.0

<표 17> 경제적 기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지원

구 분	응답자 수 (명)	비율(%)
창작비(재료비, 훈련비, 거주비등) 지원 확대	72	35.8
문화예술 관련 청년 일자리 확충 (문화예술코디네이터,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등)	40	19.9
청년 문화예술 시장 활성화	33	16.4
청년 문화예술인 창업 및 펀딩 기회 확대	26	12.9
청년 문화예술인 작업 공간 지원	21	10.4
청년 문화예술인 쿼터제 실시 (공공기관 문화행사에 청년 참가비율 할당제 도입 등)	6	3.0
기 타	3	1.5
전 체	201	100.0

2. 청년문화예술 활동 가치 인식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청년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 가치 인식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 청년문화예술인들의 활동 이유로 '내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답변과의 차이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순욱 외, 2019: 156).

<표 18> 청년문화예술인의 활동 이유

* 중복응답

구 분	응답자 수 (명)	중복응답비율(%)
내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서 (자아실현)	156	77.6%
뒷날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서	55	27.4%
현재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79	39.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38	18.9%
취미 활동의 일환	65	32.3%
기 타	9	4.5%
전 체	402	200.0%

제주 청년문화예술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의 자아실현'이 전체 응답의 40.3%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으면서도 다른 답변과의 차이도 컸다(이순욱 외, 2019: 158). 제주 청년문화예술인들은 청년 개인의 자기탐구와 자기정체성을 발현하는 데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지역 정체성 발견과 지역 가치 제고'에 관한 답변도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제주 청년문화예술의 가치(역할)

구 분	응답자 수 (명)	비율 (%)
청년의 자아 실현	81	40.3
문화의 다양성 촉진	51	25.4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	29	14.4
지역정체성 발견과 지역가치 제고	21	10.4
지역경제 활성화(문화산업 발전 등)	17	8.5
기 타	2	1.0
전 체	201	100.0

청년문화예술 활동 기간이 늘어날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장단계가 높아질수록 '활동 지속 의사 없음'과 '모르겠다'는 답변의 비율은 낮아지고 '활동 지속 의사 있음' 응답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이순욱 외, 2019: 155). 즉 청년문화예술 활동 지속에 대한 의사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년문화예술 활동의 이유와 활동기간이라는 응답자 특성을 교차분석했을 때, 내적 만족감 답변의 비율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성장 단계가 나아갈수록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답변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이순욱 외, 2019: 157). 청년 문화예술인들은 활동을 통해 자아를 발현하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활동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하겠다.

<표 20> 문화예술인 성장단계별 활동 이유(중복 응답)

구 분	내적 만족감 (자아실현)		향후 관련 분야 근무 희망		현재 관련 분야 근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취미 활동		기 타	
	응답자 수(명)	비율 (%)	응답자 수(명)	비율 (%)	응답자 수(명)	비율 (%)	응답자 수(명)	비율 (%)	응답자 수(명)	비율 (%)	응답자 수(명)	비율 (%)
전 체	156명	77.6%	55명	27.4%	79명	39.3%	38명	18.9%	65명	32.3%	9명	4.5%
예비 단계	58	79.5	16	21.9	10	13.7	8	11.0	53	72.6	1	1.4
진입 단계	60	81.1	24	32.4	37	50.0	14	18.9	9	12.2	4	5.4
신진 단계	34	73.9	14	30.4	28	60.9	12	26.1	2	4.3	2	4.3
중견·저명 단계	4	50.0	1	4	4	50.0	4	50.0	1	12.5	2	25.0

청년기에 대한 설명에는 힘, 꿈, 미래, 실험, 무한한 가능성과 같은 희망적인 요소와 방황, 갈등, 미성숙, 미완성, 불안정과 같은 미성숙의 시기임을 나타내는 요소가 공존한다. 청년들은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은 시기에 해당하기에 삶 전체를 보며 자존감이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길러내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미래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자신을 이끄는 중력에 대해 깨우치는 것이다(조한혜정, 2016: 87). 2015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한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의 '문화활동인식 및 수요조사'에서 이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20대 청년 응답자들은 문화활동을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으로 인식(46.7%)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활동이 자신의 고민과 걱정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박영정 · 박소현 · 박진수, 2015: 74-77). 제주 청년문화예술 활동의 가치 인식 역시 자아 실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점도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Ⅳ. 청년문화예술의 과제

청년문화는 무엇인가. 구스타프 비네켄(Gustav Wyneken)[8]은 청년문화를 '공통된 문화적 장 내에서 형성되는 젊은이들의 문화적 활동과 스타일'이라 말한다(Gustav Wyneken, 1914). 필립 라이스(F. Phillip Rice)는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며 그들이 공유하는 규범, 가치 및 관행'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F. Phillip Rice, 2007). 청년문화 관련 최초의 조례였던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9]에서는 "청년문화란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창조하고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문화"로 규정했다. 각 세대들은 그 전 세대와 문화, 지식의 측면에서 서로 구별된다. 이처럼 청년문화란 기성 사회나 문화에 내포된 가치나 규범, 행동, 라이프 스타일과 경쟁, 대립하면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한편, 이를 넘어서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새롭고 창의적이며 다양한 형태의 문화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화는 상징적인 공유 시스템이며,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변형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즉 문화는 시대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문화예술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신념, 행동, 스타일, 관심 분야 등 사회적 요구와 그 모습 또한 달리했다.

60년대 서구 유럽에서 청년문화는 부조리한 기성사회와 물질만능주의에 저항하고, 평등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예술적 방식으로 진보적 행보의 중심에 있었듯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년세대는 역동의 흐름을 담지해 왔다. 60년대 한국에서는 정치적 진보의 주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70년대에는 대중문화의 성장과 함께 이전 체제를 답습하지 않은 다양하고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을 구가했다. 당대 청년의 신념으로 점철된 청년문화는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그들의 정체성과 사회적 요구를 세상에 드러내 왔다. 하지만, 그러한 성격은 1990년대 이후 후기산업사회의 논리에 포획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약해지다 2000년대 들어 거의 소멸하다시피 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이후 20년간 가파른 사회의 변화 속에 현재의 청년은 과거의 청년과 또 다른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청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은 문화예술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청년의 문제와 함께 문화예술의 개념 역시 사회 변동의 맥락에 따라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작금의 청년문화예술인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지원 방안을 재차 살뜰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0년대 이후 청년과 청년문화는 급격한 사회 변동과 더불어 하나의 담론이 되었다. 담론의 주체이자 대상자로서의 청년을 규정하기 위해 연령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연

8) 독일 교육학자로 자유학교 공동체 '비커스도르프'(Freie Schulgemeinde Wickersdorf)를 설립하였다.

9) 2017년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령은 각 생애 단계의 대표적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비슷한 연령대의 동년배들은 인생에서의 주요 단계들과 사회적 경험을 함께 겪어오면서 그들 고유의 문화와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문화는 연령 코호트로는 담백하게 구분할 수 없는 다양성과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사회적 경험은 더 이상 생애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문화가치와 과제를 공유하는 경계는 연령이나 세대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청년문화의 개념 규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2018년 부산지역 청년문화예술 관련 연구에서도 개념의 모호함이 드러나고 있다. 다음의 발언을 참고할 수 있다(이순욱 · 남영희 · 이미연 · 정대성 · 정민경 · 정세아, 2018: 159-160).

- 청년문화라는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일반인들도 관심이 잘 없다.
- 사실 청년문화라는 용어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청년을 앞에 붙인 합성어가 되게 많은 것 같다. 이런 것 또한 청년들이 먼저 만들어내기 보다는 어떤 기관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온 사항에 청년들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반감도 있는 편이다. 꼭 정의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 문화재단이 생각하는 청년문화가 무엇인지 개념이 모호하다. 그들의 입맛에 맞춰지는 기분이다 …… 청년문화의 정의, 문화가 너무 모호하다.
- 선배님들조차 잘 모르시지 않는가. 주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인디 문화에 가까운 것 같으나, 그 사람들도 전부 청년은 아닌 것 같다. 선배님들이 바라는 게 있는 것 같다. 신선한 아이디어를 원하는 것 같으나 나는 잘 모르겠다.

개념을 규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년과 청년문화라는 담론의 규모는 크게 확장되었다. N포 세대, 청년실신, 이태백, 이구백, 빌빌세대 등 자조적 신조어가 넘쳐나면서 청년은 마치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존재로 인식되기도 했다. 고용과 일자리 문제가 블랙홀처럼 청년 문제를 관통하는 핵심의제로 부상하면서부터는 이러한 현상은 가중되었다. 청년과 청년문제가 정치적 의제가 되면서부터는 이른바 '청년팔이'로 전락하는 불편한 현상마저 목도하고 있다. 청년문화예술 활동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가치가 '개인의 자아실현'에 수렴하는 까닭은 자신의 문화예술 활동을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으로부터 선을 긋고자 하는 반작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로부터의 이러한 편견을 집단적으로 공유하지 않고 청년과 청년문화예술에 관해 나름의 건강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은 상당히 고무적이다(이순욱 외, 2018: 159-160).

- 청년문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 어떻게 느끼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공연의 형태로, 장르적인 측면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 청년문화는 소비적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고민과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 예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는 게 청년문화가 아닐까.

- 관객, 소비층이 청년이라고 청년단체로 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청년들끼리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청년이라면 현재에 우리가 이야기하여야 할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시대를 살고 반영하는 문화예술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인지를 해야 한다. 내가 기획한 프로젝트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게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인가, 청년들이 이야기하고 생각해야 할 것들을 가시화시켜야 한다.
- 청년문화는 정해지지 않은 것,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정해진 틀에서 벗어난 것들을 만드는 문화.
- 우리는 기성세대가 만든 그 문화 속에서만 살 뿐이었지 우리만의 문화는 없었다. 이제는 청년들이 나서서 새로운 것들에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청년문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청년문화는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예전에는 청년문화가 그저 대학생들의 문화로 대변되다가, 그 기준과 흐름이 모호해져서 그리고 문화의 필요성, 더 나아가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그 첫 시작점으로 조례와 규정이 등장한 걸로 알고 있다.
- 여러 청년 단체들이 생산하는 콘텐츠의 범주를 다양하게 조사하여 이를 범주화해서 청년문화로 정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이것도 어려운 게, 범주를 확정하는 순간 그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새롭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죽이게 된다.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문화 단체들이 직접 자신의 데이터를 기입하여 '청년문화'의 범주가 그 외연을 스스로 확장 할 수 있어야 한다.
- 청년문화를 만들려면 우선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중략)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문화를 명시해가고 알아가는 과정을 열어주자고 생각했다.

제주 청년문화예술과 관련한 세 차례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도 이와 유사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청년들은 문화예술을 열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장르 중심의 예술을 넘어 새로운 형식을 차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발굴해나가고자 하며,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영역을 문화예술의 범주로 포섭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돋보였다. 다음으로 처음에는 개인의 내적 만족감과 자아실현을 청년문화예술 활동의 동기로 삼았다면, 활동을 지속할수록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공공의 영역으로 그 가치 인식이 전환된다는 점이다. 즉 자신의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청년문화예술의 과제를 크게 두 가지로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일상의 영역을 폭넓게 담지하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청년들은 문화예술을 열린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통적인 예술의 장르에 집착하기 보다는 문화기획이라는 넓은 범주 아래 다양한 주제를 포용하며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기 위해 형식을 차용하는 방법도 다채롭다. 가령 일자리와 주거 등 청년들의 현안, 힐링과 일상의 삶, 개인의 취향 등을 주

제로 하는 다양한 단체 활동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공연, 전시와 같은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강연, 세미나, 자유 토크, 다이닝, 강습 등 다채로운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자신의 영역과 개인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일상의 안정과 소소한 행복을 누리게끔 만든다. 이처럼 개인의 내적 만족감이나 자아실현과 같은 일차적인 목적의 실현은 타인의 그것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즉 자신의 영역이나 개인성이 존중받는 만큼 타인의 영역, 공간, 취향 역시 존중하게 되며 결국 다양성이 존재하고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청년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제주 청년문화예술 활동의 예에서 개인 영역에서의 내적 만족감에 활동의 주된 목적을 두고는 있지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응답률도 18.9%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즉 활동 경력이 많아질수록 이에 대한 응답률이 높아지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는 청년문화예술과 지역사회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점에 대한 고민,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가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건강, 고령화, 공동체, 주거, 복지, 소외 등과 같은 지역 현안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시도 속에서 청년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의 가능성을 확장해나갈 수 있다. 청년문화예술 활동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로 환원되어 다양한 의미를 창출할 때 지역사회는 청년문화예술의 든든한 향유기반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청년과 청년문화는 그 개념을 명확히 확보하지 못한 채 담론의 폭이 확장되어왔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청년문화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사업추진과 아울러 청년문화예술 현장의 목소리와 여건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한 차례씩 청년문화예술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 연구는 각각의 연구 목적에 따라 추진된 개별 연구였기 때문에 연구 범위와 규모의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청년문화예술과 관련한 제주지역 일련의 연구는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청년문화예술과 관련한 연구가 연속적으로 추진된 지역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거니와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청년문화예술의 현실과 요구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제주 청년문화예술과 관련한 세 편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간의 정책 및 사업의 성과와 한계, 현장 활동의 요구와 이슈를 제시하고 향후 청년문화예술이 지향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주지역의 청년문화예술 정책과 사업의 성과와

한계, 청년문화예술 활동의 경향과 요구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를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주지역에서는 청년문화예술 육성과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의 수요에 비해서는 지원 규모가 부족할 실정이지만 사업을 통해 청년문화예술 활동이 크게 활성화되고 관심이 높아졌다. 지원 사업에 관한 요구사항으로는 예술가의 성장단계와 시기에 적합한 지원, 동료 예술가들과의 네트워킹과 교류의 활성화, 향유 기반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연습과 창작, 그리고 전시와 공연 등 발표를 위한 공간이 필요한 문화예술분야에 있어 공간 부족의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 절실했다. 그밖에 예술활동 이외 행정 지원에 대한 수요 역시 높았다.

둘째, 제주 청년문화예술 활동의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전통적인 예술 장르의 구분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들이 청년문화예술의 테두리 안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활동 공간의 부족 문제와 경제활동의 어려움 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동료 및 선배 예술가들과의 네트워킹과 멘토링 기회를 필요로 하는 등 활동의 지속성과 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감지할 수 있었다. 청년문화예술 활동의 가치로는 청년의 자아실현과 같은 내적 만족감이 주를 이루었으나 활동 경력이 높아질수록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의 기여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향후 청년문화예술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모색하였다. 이를 다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청년문화의 영역 안에 일상성을 폭넓게 담지하는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청년문화예술이 지역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지 고민하고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가치를 고양해 나가야 한다. 청년문화예술이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다할 때 지역사회 역시 청년문화예술의 향유기반이 되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제주 청년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청년문화예술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오늘날 청년문화예술은 두 가지 면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청년문화예술의 개념은 무엇인지 추적해야 한다. 청년문화예술은 새로운 개념일 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대단히 넓고 복잡한 층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적 생산성 측면에서 문화예술이 가지는 특수성, 오늘날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불안정한 사회적 환경, 청년세대 특유의 역동성 등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문화예술을 고정적이거나 머물러 있는 개념으로 간주해서는 곤란하며 언제나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역동성에 주목하며 그 개념을 갈무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문화예술의 지원 방향을 설정할 때 현장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 과거 세대에서 청년과 청년문화는 체제의 모순에 저항하고 시대정신을 표출하는 주체이자 도구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

나 현대사회에서의 청년과 청년문화는 급격한 사회 변동과 더불어 하나의 담론이 되었다. 오늘날의 청년문화는 단순히 연령이나 세대 코호트로 규정할 수 없는 모호한 개념이지만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개성과 취향이 존중받으며 삶을 담아낼 수 있는 열린 영역으로서의 청년문화 개념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의 청년 문화예술 육성·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청년 문화예술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청년 문화예술 현장의 움직임과 요구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지속할 때 청년 문화예술은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지혜, 2008, 「프랑스 68혁명과 예술운동 : 예술의 대중화와 정치화」, 『마르크스주의 연구』, 5(2), 76-98.

김진철·조서현·이형문·이재형·양지혜, 2017, 「제주 청년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제주문화예술재단.

김진철·조서현·이형문·이재형·정슬기·박기현·박지연, 2018, 「제주 청년문화예술 지원 사업 고도화를 위한 연구」, 제주문화예술재단.

남정우, 2016, 「청년들이 살아갈 문화세계의 반성과 전망」, 『철학·사상·문화』 21, 119-137.

박신의, 2013, 「'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 분석과 정책적 함의」, 『문화정책논총』27(1), 56-75.

박영정·박소현·박진수, 2015,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재흥,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24(2), 47-78.

우석훈, 2009,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 88만원세대 새판짜기』, 레디앙미디어.

이순욱·남영희·이미연·정대성·정민경·정세아, 2018, 「부산 청년문화의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부산문화재단.

이순욱·김진철·남영희·정민경·조서현·박경호, 2019, 「제주청년문화예술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제주문화예술재단.

전상진, 2018, 『세대 게임: '세대 프레임'을 넘어서』, 문학과지성사.

_____, 2002, 「세대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세대개념의 분석적 구분」, 『한국인구학』25(2), 193-230.

정대성, 2015, 「'68'-문화혁명-국가권력」, 『역사와 문화』 29, 87-114.

_____, 2019, 『68혁명 상상력이 빚은 저항의 역사』, 당대.

제주문화예술재단, 2017,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16.

_____, 2019, 『삶과 문화』 72.

_____, 2019, 「제주 청년문화예술 육성 중장기정책연구」.

제주특별자치도, 2017, 「제주 청년 종합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문화예술재단, 2013, 「제2차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 최종보고서」.

조한혜정, 2016, 『노오력의 배신: 청년을 거부하는 국가 사회를 거부하는 청년』, 창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아트노크 https://artknock.net

Abstract

Present Status and Challenges of Youth Culture and Art in Jeju

Jeong, Min-Kyoung* · Kim, Jin-Chul** · Nam, Young-Hee*** · Lee, Soon-Wook****

Today, youth and youth culture and art have expanded its span of discourse without clarifying their concepts in Korea. The local government even considered this a new growth engine of the region. Therefore,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have established various systems and policies and promoted diverse projects to foster and support youth culture and art. In addition to promoting these projects, research on youth culture and art was conducted once a year from 2017 to 2019 in Jeju. Although these studies were individual studies, the results of each FGI and survey were summarize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local youth culture and art. In Jeju area, various programs and policies were established to promote and support youth culture and arts, and these projects contributed to revitalizing youth culture and arts activities. Young artists and culture activists showed their willingness to enhance their capacity through networking, exchange, mentoring, and education, even in difficult conditions such as economic problems and lack of space. The contents of youth cultural arts are based on personality, taste, and everyday life rather than being included in the traditional genre of cultural arts. The form was also diverse, including lectures, seminars, and free talks. The main purpose of pursuing youth culture and arts was to achieve internal satisfaction such as self-realization of individuals, but as the number of active careers increased, the scope of interest expanded as contribution to community development. Two future tasks of youth culture and art were suggested; It should be an open space containing the value of diversity; Attention should be paid to social roles in the community.

Key Words : Youth culture and art, Youth culture and art support project, Youth, Jeju, Self-realization, Local community

* First Author, Lecturer, Pusan National University
** Co-author, Special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for the Tamla Culture
*** Co-author, Lecturer, Pusan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교신 : 이순욱 46214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
부산대학교 제2사범관 국어교육과 308호
(E-mail: enfb@pusan.ac.kr)

논문투고일 : 2020. 07. 12
심사완료일 : 2020. 07. 29
게재확정일 : 2020. 07. 30